

보경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9

2021 September
Vol.544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Contents

2021 September
Vol.544

시선이 닿다

일상을 펼치다

세상을 품다

소식이 오다



COVER STORY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한 인권 중심 정책으로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 ZOOM IN 춘천교도소	04
생각의 방향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10
지금, 이 사람 제14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황우중(법명 스님)	12

별별 알고리즘 일상의 습관에서 나오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	16
--	-----------



부캐를 부탁해 웨이크보드 도전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박진영 · 권오영 · 설병현	18
---	-----------

선배에게 듣다 춘천교도소 교감 함유복	22
--------------------------------	-----------

교정인 원픽 발 빠른 응급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다	26
---	-----------

힐링 메신저 호반 따라 낭만이 깃든 추억 여행지, 춘천	30
---	-----------

지구 초대석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식단으로	34
---	-----------

물음의 소통 직장인의 백신 접종 계획과 현황은?	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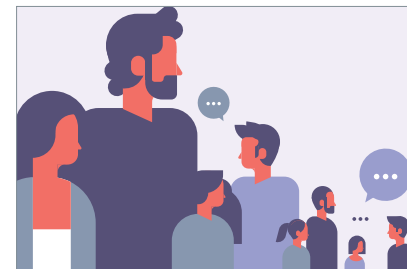
관계 반창고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하는 소통의 기술	38
--	-----------

알쓸꿀잡 높은 기온 속 불청객 식중독 편	40
-------------------------------------	-----------

머니 레시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만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42
---	-----------

인문학 살롱 2020 도쿄올림픽이 남긴 것	44
-----------------------------------	-----------

오늘의 건강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46
------------------------------------	-----------



대나무숲 일기 1 문득 생각나는 사람과의 시간 순천교도소 교위 조정열	48
---	-----------

대나무숲 일기 2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남편에게	50
---	-----------

교정 리포트 질적 연구를 통한 전임 교종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①	52
--	-----------

교정 News	58
----------------	-----------

모범 공무원 소개	65
------------------	-----------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9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9월호 Vol.544
www.corrections.go.kr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춘천교도소



110여 년의 역사를 이어 온 춘천교도소는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체계적인 인력 관리로 조직 구성을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료 간의 화합

춘천교도소는 동료 간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업하며 업무 소통을 극대화합니다. 동료와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수용자 처우 향상

춘천교도소는 효과적인 교정교화의 일환으로 가족접견실, 소망의 집, 허그일자리지원, 고충처리팀 등을 운영해 수용자가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춘천교도소

춘천교도소는 수용자 출정, 이송 시 호송버스 방역, 수용자 기저질환 확인, 체온 체크 등으로 교도소의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간이 검사소 운영 및 검역 현장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옹기 장인이 만든 옹기를 사러 온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깨지죠?” 장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그럼요. 당연히 깨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옹기를 사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죠. 아무리 견고하게 잘 만든 옹기라도 충격이 가해지면 깨집니다. 사람들은 깨지지 않는 그릇을 찾지만, 옹기를 만드는 이현배 장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그릇이야말로 깨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묻습니다. 쉽게 깨지는 걸 옆에 두고 있으면 늘 조심해서 다뤄야 할 테니, 그 습관이 몸에 배면 그릇뿐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주의하고 배려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것이 많아지면 사람 역시 그렇게 대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때로 사람들의 마음은 옹기보다 깨지기 쉽고, 유리보다 금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다치지 않게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한 수도원 건물에 있는 복도입니다. 이 복도는 폭이 아주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복도를 이렇게 좁게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다니죠?” 이 복도에서는 이쪽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 즉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서로 급하다고 먼저 가겠다고 나서면, 결국 아무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가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복도에서는 종종 이런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기다려 주고, 다른 사람이 고마움을 표하며 지나가는 모습 말이죠. 상대방이 지나가고 나서야 기다리던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편안함과 빠른 속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불편하고 느린 복도는 사람들에게 말해 줍니다. 앞만 보고 가기 바쁜 일상에서 잠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 상대방을 위해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 주는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존중과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는 일이고,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배한봉 시인의 ‘포장마차 국수집 주인의 썸밥’이라는 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밤, 포장마차에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남자가 시킨 건 국수 한 그릇, 주인장은 넘치도록 푸짐하게 국수를 내오고, 남자는 그걸 딸 앞에 놓아 줍니다. 보통의 1인분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 딸이 배부르게 먹고도 국수는 많이 남았

습니다. 딸이 그만 먹겠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자 남자는 남은 국수를 가져가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슬쩍 와서 덤으로 얹어 주고 간 국수와 국물까지도 말이죠.

부녀가 가고 난 뒤에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손님이 묻습니다. 이왕 그렇게 선심을 쓸 거면 아예 처음부터 두 그릇으로 나눠서 주지 그랬느냐고.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그러면 한 그릇은 제 값 내고 먹는 거지만, 다른 한 그릇은 얻어먹는 게 되잖아요.” 주인이 신경 썼던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자가 불편해하거나 초라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한 그릇에 2인분의 국수를 푸짐하게 얹어 줍니다. 넘칠 듯 수북한 그릇에는 주인의 사려 깊은 마음까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때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어려운 것은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화가 바이런 킴은 ‘제유법’이라는 작품에서 보여 줍니다. 그는 가로세로 각각 20cm 정도 되는 네모난 패널 400개를 미술관 벽에 모자이크 타일처럼 붙여 놓았습니다. 각각의 패널에는 흰색에 가까운 분홍에서 짙은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이 칠해져 있는데, 각기 다른 400가지의 색은 400명의 피부색을 의미합니다. 화가의 모델이 되어 준 친구와 주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의 피부색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색 중에서 똑같은 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열거나 좀 더 진하고, 좀 더 밝거나 좀 더 어두운 색, 이 다채로운 색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부색만큼이나 서로 다른 개성과 생각,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다름은 때로 갈등이나 다툼의 원인이 되고,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일이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존중받는 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내가 배려받는 일이 될 테니까요.



죄가 아닌, 인간을 들여다보는 삶을 살다

제14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황우중(법명 스님)

지난 8월 3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황우중(법명) 스님을 새로운
회장으로 임명했다. 1994년에 대전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시작해 한결 같은 성심으로
수용자 교정교화는 물론 교도관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온 황우중 회장을 만났다.



작은 기적을 빛는 사람들

헌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교정위원은 교정기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교도관이 국가로부터 명 받은 임무를 하고 있다면 교정위원은 민간인, 종교인으로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도우며 출소 이후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고 응원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제14대 회장으로 임명된 황우중 회장의 역할은 그런 이유에서 변함없이 묵직하고 엄중하다. 올해로 87세, 사실은 회장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이라고 깔깔 웃지만 교정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황우중 회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 싶다.

“1983년도에 한일 불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연화 보살이 제게 ‘스님, 딱 한 가마니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수용자한테 가는 줄도 모르고 해 달라고 하니 일단 해 줬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대전교도소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정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었는데 그곳 수용자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교정위원이 단순히 수용자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웃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에게는 종교를 초월한 편안함과 따스함이 있었고 이를 알아본 많은 교회 목회자 및 교정위원은 그를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과 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이토록 오랜 세월을 교정위원으로서 수용자 옆에 살게 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죄를 짓고 들어온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책임감과 의지이다. 거칠고 과격한 수용자들이 그를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작은 기적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혹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악인과 선인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황우중 회장이 이야기 말미에 고개를 깊숙이 끄덕인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배경을 살펴야

사회에서 지탄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는 수용자, 전과 1범·5범·9범 등 거듭된 범죄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수용자, 거친 수용 생활로 교도관들을 비롯해 모두를 힘들게 하는 수용자. 긴 세월 동안 황우총 회장이 만난 수용자는 100인 100색이었다.

그토록 제각각 달랐던 수용자들이지만 황우총 회장은 그들을 한결같은 태도로 대했다. 저지른 죄보다 사람을 앞서 살폈기 때문이다.

“죄를 거듭해서 저지르는 범죄자를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구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나 검사님도 반복되는 죄만 보면서 더 많이 구형하고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사람들은 따뜻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는 그 이면을 봐 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 저 사람이 왜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그 주변을 살핍니다.”

출소한 뒤 황우총 회장을 찾아와 “일을 하고 싶는데 리어카가 없다”,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 “일할 수 있게 도구를 사 달라” 등등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출소자들을 황 회장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런 그를 두고 “그러시면 안 된다”, “스님을 속이는 거”라고 만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황우총 회장은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 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관계를 풀어 가는 비법, 배려·존중·화합

교도소에는 수많은 관계가 존재한다.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 교정위원과 수용자의 관계, 교도관과 교도관의 관계, 교정위원과 교정위원의 관계, 교정위원과 교도관의 관계 등 일보다 인간관계를 풀어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지금, 황우총 회장은 그 해법으로 배려와 존중, 화합을 이야기했다.



“교도관은 세상으로부터 좀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수록 그에 따른 존경과 자부심이 함께 주어져야 해요. 제가 교정본부가 아니라 교정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본부가 청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교도관은 또 함께하는 수용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자신이 존중받고 배려받는다 생각하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교정위원 역시 봉사 초기의 마음을 잊지 말고 돈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 화합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진심으로 대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정기관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모두를 위한 진정한 교정교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황우총 회장에게는 잊지 못할 수용자 한 분이 있다. 강도죄를 저지르고 5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수용자였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는 좌절을 못 이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자고 청하자 “내가 스님과 왜 만나야 합니까?”라고 대뜸 불통스럽게 나왔다.

어렵게 그와 마주 앉은 황 회장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양심이 존재한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5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10년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울 수 있는 기간이다. 죄짓고 와서 자살하면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차분히 위로하고 단단하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수용자는 “제가 스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친구가 되면서 그는 모범수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속상한 일이 일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이다. 황우총 회장의 얼굴에는 10년 전 일임에도 가시지 않는 안타까움이 깃들여 있다.

새로운 회장으로서 그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동시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고, 임기 중에 교정위원 전국회원 대회를 개최해 교정위원 간 우의 증진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교정위원들과 화합해 수용자 교화사업의 새 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황 회장의 얼굴에 차돌같이 단단한 의지가 감돈다.

“교정위원은 나보다 남을 생각해야 하고, 교도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범죄와 유혹의 경계에 서 있는 수용자들에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관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임기 동안 모두가 제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일상의 습관에서 나오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현대인의 삶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 자신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좀 더 주변을 둘러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상대방과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보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지혜

서로를 다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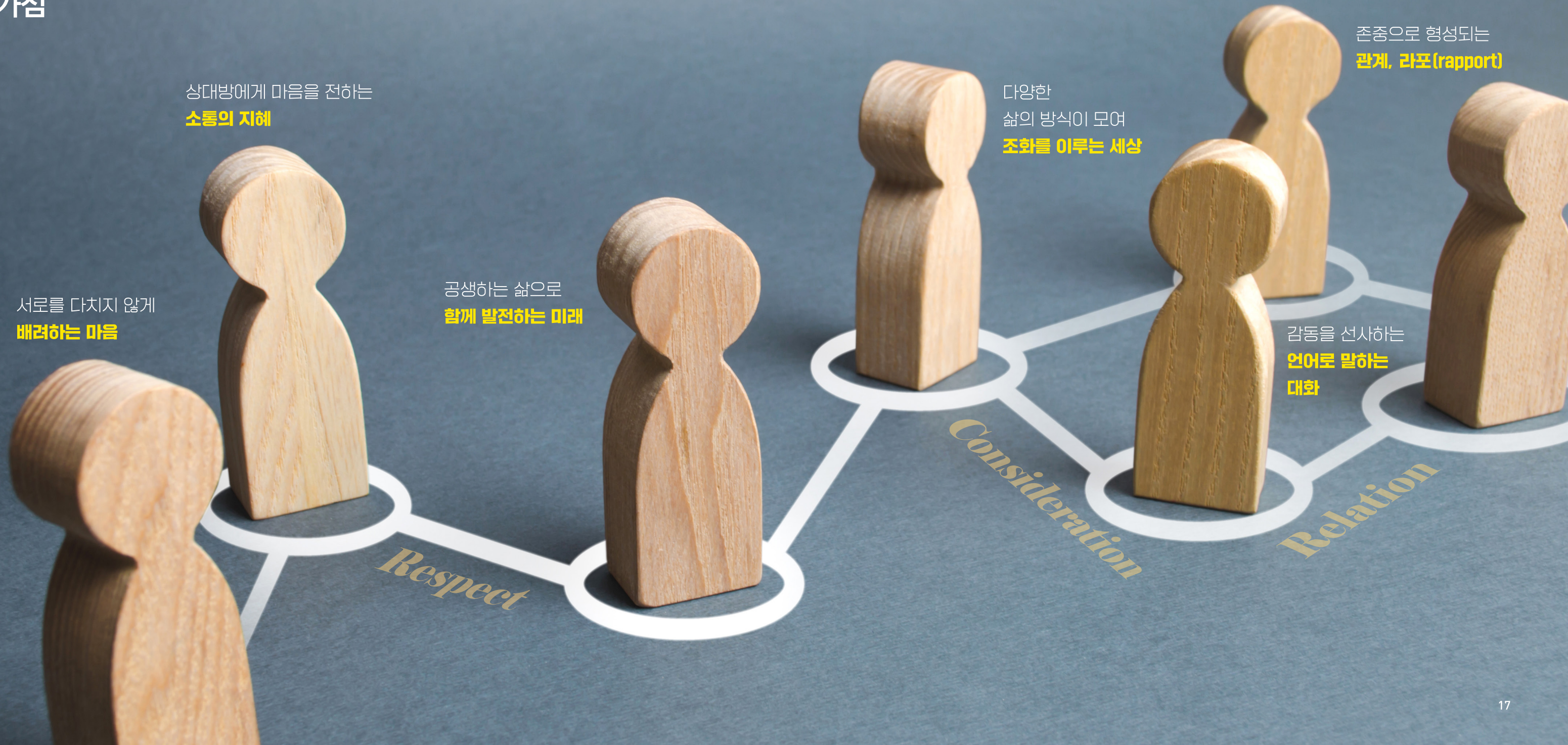
공생하는 삶으로
함께 발전하는 미래

다양한
삶의 방식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세상

존중으로 형성되는
관계, 라포(rapport)

감동을 선사하는
**언어로 말하는
대화**

Develop life together



도심 속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질주!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박진영 · 권오영 · 설병현

여름의 막바지, 서울남부교도소 교도관 3인이 웨이크보드에 도전했다. 물살을 가르며 스트레스는 날리고 새로운 활력을 채운 하루. 이들의 뜨거운 도전을 따라가 봤다.

※ 9월호 '부캐를 부탁해'의 웨이크보드 체험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교육을 단독으로 예약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야구인 3인방, 짜릿한 물의 세계로

무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선유도 한강공원에 서울남부교도소 박지과 박진영 교위, 보안과 권오영·설병현 교위가 모였다. 이들은 오늘의 미션, 웨이크보드에 도전하기 위해 선착장에 섰다. 웨이크보드는 강이나 호수에서 보트와 보드를 줄로 연결해 수면 위를 달리는 수상 스포츠다. 물 위를 질주하는 풍경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사내 야구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세 사람이 오늘날만큼은 그라운드가 아닌 물 위를 질주할 참이다.

“야구 동호회 ‘남부캡틴스’에서 각각 감독, 코치, 선발 투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평소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는 만큼 함께 땀 흘릴 때 더욱 즐거운 것 같아요. 색다른 스포츠를 체험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네요. 짜릿한 액티비티로 팍팍한 현실을 모두 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겠습니다!”

박진영 교위에게 두 사람은 각별한 존재다. 5년 전, 서울남부교도소에 부임하고 난 후 사내 야구 동호회를 함께 창단한 멤버들이기 때문이다. 권오영 교위는 감독으로, 박진영 교위는 코치로, 설병현 교위는 선발 투수로 각자의 역할을 도맡아 동호회를 이끈다. 순수하게 야구를 좋아하는 이들은 퇴근 후 옥상에 모여 연습에 매진하는 등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왔다. 그리고 창단 4년째, 드디어 전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인 야구 대회인 인천 스카이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며 주목받았다.

무엇이든 실습 전 이론은 필수. 야외 데크에서 지상 교육을 받는다. 웨이크보드를 타는 자세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앉은 채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 발끝을 올리면 출발 자세가 된다. 일어설 때는 힘을 빼는 게 포인트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로프를 당겨 일어나는 연습까지 마지막 설렘은 배가된다.



서둘러도 괜찮아, 스피드를 만끽하다

“유년 시절을 고흥군에서 보냈어요. 늘 물 가까이에서 지내서 그런지 물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설병현 교위가 자신감을 내비치자 두 사람도 “한강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는 유쾌한 각오를 전했다. 물에 들어가기 전, 보드에 부착된 부츠를 착용한다. 드디어 실습 시작. 로프를 잡기 전, 한 명씩 보트 옆에 달린 붓을 잡고 실전 감각을 익힌다. “1번 자세로 들어갑니다. 다리 붙이세요!” 세 사람 모두 지상에서 연습한 대로 제법 잘 수행한다. 붓을 잡은 채 자연스럽게 물 위에 앉고 일어서는 동작까지 연습하니 자신감이 생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 한가운데로 출발한다.
 부웅,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며 나아가는 보트. 박진영 교위가 가장 먼저 도전에 나선다. 앉은 자세를 취하자 보트의 스피드가 점점 올라간다. 웨이크보드가 물 위로 떠오른다. 천천히 보드를 돌리면서 일어난다. 이때 몸을 옆으로 향한 채 살짝 뒤에 기댄 자세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사리 일어났지만 이내 물속으로 쓰러지고 만다. 뒤이어 설병현 교위와 권오영 교위도 도전에 나섰다. 첫 도전임에도 일어나는 데까지 성공. 서툰 자세지만 꽤 희망적이다. 권오영 교위가 소감을 밝혔다.
 “세상 만만한 게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평소 스키를 즐기는데, 설원과 물 위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팔과 허벅지에 힘이 엄



한강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30초가 길게 느껴지네요. 웨이크보드의 핵심은 힘을 빼야 한다는 걸 몸소 배우게 됩니다.

청 들어가네요. 그래도 감을 살짝 익힌 것 같아요. 길게 달리진 못했지만 스틸 넘치고 재미있네요.”
 1차 도전을 마친 뒤 선착장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실제 탄 시간은 짧지만 체력 소모가 큰 스포츠이기 때문에 처음 도전하는 입문자에게 휴식은 필수. 선유도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즐긴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옳다

휴식을 마친 후 다시 2차 도전에 나선다. 보트에 몸을 싣고 나아가자 시원한 강바람이 온몸을 감싼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을 만끽하니 비현실적인 기분이 든다. 적당한 지점에 다다르자 한 명씩 다시 체험을 시작한다. “힘 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출발!” 1차 도전 때보다 익숙하고 여유롭게 보드를 즐긴다. 물에 빠지기를 수차례. 그럼에도 새로운 모험이 선사하는 짜릿함은 에너지로 치환되며 엔도르핀이 솟는다.
 “30초가 길게 느껴지네요. 웨이크보드의 핵심은 힘을 빼야 한다는 걸 몸소 배우게 됩니다. 평소 업무 자세와도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수용자도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다독여야 하니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인생의 이치도 되새기고 갑니다.”
 박진영 교위의 소감이 두 사람 모두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권오영 교위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약속했다. “근무지 밖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추억이 오래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체험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설병현 교위 또한 “다음을 기약해야죠. 웨이크보드 외 패러글라이딩이나 번지점프 등 익스트림 레포츠도 함께해 보려고요”라며 웃었다.
 도전의 참맛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새로운 자신감으로 연마하는 과정이 아닐까. 낯선 물속에서 자신을 믿고 동료와 함께하며 활력을 채운 이들. 세 사람에게 오늘의 도전은 힘찬 응원가로 남았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맞춰 취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기본과 원칙이 존중과 화합의 첫걸음입니다

함유복(춘천교도소 보안과 교감)

일반적으로 기본과 원칙은 이성적 영역, 존중과 화합은 감성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부류의 덕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서로를 바라보고 배려해야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화합이 싹트는 법. 함유복 교감은 오랜 세월 이 신념을 굳게 지켜 왔다.



Q. 교감님의 주요 경력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교도소 보안과 보안3부 당직교감을 맡고 있는 함유복입니다. 저는 1989년 임용 직후부터 2016년까지 줄곧 춘천교도소에서 일했습니다. 독거수용동, 고충심리팀 등에서 일하며 보다 올바르게 수용자를 대하는 방법을 고민해 왔고, 경비교도대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며 배려와 화합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교감 승진 직후 서울남부교도소로 자리를 옮겨 3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7월 다시 춘천교도소로 돌아와 교정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늘 ‘보고를 잘하라’고 강조합니다. 보고는 언뜻 생각하면 나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Q.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체화한 업무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종종 우리 부 직원들과 함께 퇴근할 때 “기본에 충실합시다”라는 인사말을 주고받곤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키기 힘든 덕목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각자 맡은 업무에서 기본에 충실하면 작게는 보안3부가 잘 돌아가고, 크게는 춘천교도소와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이 평온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기본은 원칙,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마땅히 하도록 정해진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 of 본질입니다. 나아가 원칙과 규정을 잘 지켜야 개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휘하는 유연함은 융통성이 아니라 무질서에 가깝습니다. 기초 질서가 그 어느 곳보다 중시되는 교정기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 또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난 32년을 보냈습니다.

Q. 수많은 원칙 중 평소 후배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원칙이 있나요?

모든 직책과 직급에는 정해진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데,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반면 직급이 낮을수록 주어진 권한과 책임도 작아지죠. 그렇기에 저는 후배들에게 늘 ‘보고를 잘하라’고 강조합니다. 보고는 언뜻 생각하면 나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보고하면 상급자에게 일의 권한과 책임이 이양됩니다. 그러면 상급자는 더 넓은 원칙과 권한을 토대로 일을 해결해 나가죠. 보고를 통해 큰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업무를 다한 뒤 있는 그대로 보고하세요. 이것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출발점입니다.



Q. 평소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존중, 배려, 화합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도 나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일해야 교정기관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야 하죠. 예를 들어 당직교감은 있는데 일선에서 활약할 직원들이 없다면 춘천교도소는 어떻게 될까요? 수용자는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고, 당직교감은 수용자를 교화하기 힘들 겁니다. 직책과 직급의 차이는 있되,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를 충실히 지켜야 춘천교도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이처럼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존중, 배려, 화합의 기본이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Q. 수용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교정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용자도 교정기관의 일원인 만큼,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사람 좋은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점입니다. 모든 수용자를 대할 때는 뚜렷한 규정을 바탕으로 공평하게 처우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각자의 성향, 건강, 환경 등에 따라 조금씩 배려하는 처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때에도 결코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정기관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교정공무원과 수용자가 서로를 존중·배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 기관의 일원이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수용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 후배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Q. 교감님은 업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예전에는 낚시터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이 자연스레 풀리고, 복잡하던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되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앞으로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제 정년이 4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후배들에게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잘 전수하는 것이 저의 남은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목표를 잘 달성한 뒤 퇴임하고 나면,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걸 테스트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Q. 이번 기회를 빌려 후배 교정공무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본과 원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저를 고리타분한 선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과 원칙은 지루하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일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간혹 '지난 30년 동안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가 무엇이었나'는 질문을 받을 때 '별일 없이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기본과 원칙을 나름대로 잘 지켜 왔다는 의미니까요. 이번 기회에 후배들도 기본과 원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

저는 간혹 '지난 30년 동안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가 무엇이었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별일 없이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합니다.

〰〰

발 빠른 응급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멈췄던 춘천교도소 한 수용자의 심장박동이 무사히 되 돌아왔다. 당시 근무 중이던 교정공무원들의 신속, 정확한 응급 대처 덕분이었다. 수용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이어 온 노력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 순간이다. 그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월간 <교정> 취재진이 선물과 함께 춘천교도소를 찾았다.



수용자 건강의 '골든타임',

투철한 교육 훈련으로 사수합니다!

지난 7월 16일, 춘천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4명이 법무부 장관 및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과 함께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응급처치를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전후 의식을 회복하며,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히 회복할 경우 응급처치자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인증이다. 춘천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이러한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이들의 응급처치가 그만큼 신속, 정확했음을 의미한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6시 54분경 발생했다. 한 수용자가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위급 상태에 놓인 것. 이를 발견한 직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수용자를 의료과로 이송했다. 이후 교정공무원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제세동기를 이용해 심전도 분석 및 전기 충격을 진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 이송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실시했으며 재차 제세동기 심전도 분석을 진행,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회복됐음을 확인한 후 외부 병원 담당자에게 수용자를 인계했다. 덕분에 수용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춘천교도소 보안과 및 의료과 교정공무원들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작동법을 포함한 응급 환자 대응 훈련을 주 1회 실시한다.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응급 상황 발생 시의 혼란스러움과 실수를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춘천교도소의 신념과 땀방울은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월간 <교정>도 교정공무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물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모두의 운동’을 위한 합리적 선택

‘다이얼 무게 조절 덤벨’

덤벨은 근력 운동의 상징과도 같다. 하지만 각자 몸 상태가 다르기에, 여러 사람이 운동하려면 다양한 무게의 덤벨을 구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수십 종의 덤벨을 청사 안에 모두 들여놓을 수는 없는 일. 고심 끝에 월간 <교정> 취재진은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으로 다양한 무게를 구현할 수 있는 다이얼 무게 조절 덤벨을 골랐다. 춘천교도소 모든 교정공무원의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선택이다.

다이얼 무게 조절 덤벨을 가장 반긴 부서는 보안과다. 주야간 교대 근무를 문제없이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체력이 필요한 데다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반응이다. 기동순찰팀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과 이상우 교도는 “수용자 기초 질서 확립과 응급 상황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근력”이라며 “선물 받은 덤벨로 체력을 단련해 춘천교도소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고충심리팀에서 일하는 보안과 김준혁 교사는 스트레스 해소 겸 취미 생활로 운동을 즐긴다. 수용자의 고충을 해결하

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곳이 마땅치 않아 헬스로 땀 흘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한다. “체력적으로 지치면 아무래도 수용자를 진심으로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받은 덤벨은 정말 값진 선물이에요. 앞으로 동료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15분의 여유로 되찾는 목 건강

‘저주파 온열 목 마사지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습관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목과 어깨를 두드린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이 뻣뻣하게 굳기 때문이다. 이는 춘천교도소에서 각종 사무 업무를 보는 교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온열 기능이 추가된 저주파 목 마사지를 선물 목록에 포함했다.

목 마사지와 마주한 총무과 양진호 교사가 반색하며 입술을 뻗었다. “청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 휴식 시간마다 각자 목을 주무르고 있어요. 보안과 내 휴게실에 안마기가 설치돼 있지만 청사에서 보안과까지 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자리를 비우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작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마사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양진호 교사와 함께 총무과에서 일하는 유형근 교도도 목 마사지가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나른한 오후에 정신도 차릴 겸 마사지를 받으면 오전 내내 누적된 피로가 싹 풀릴 것 같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내친김에 마사지를 목에 걸고 시연에 나선 두 사람. 스프링 눈이 감기고 솜은 어깨가 내려가는 걸 보니, 효과가 좋은 모양이다. 15분간 마사지를 받은 이들이 이윽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목 마사지를 ‘2021년 최고의 선물’에 임명합니다!(웃음)”

가을장마의 눅눅함, 이제 안녕~

‘투인원 공기청정제습기’

공기 중에 가득한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춰 주는 제습기는 에어컨과 함께 여름철에 가장 사랑받는 가전제품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을철에도 제습기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점점 길어지는 가을장마가 그 원인이다. 춘천교도소에는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가 마련돼 있지만, 가을장마를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습기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월간 <교정> 취재진이 공기청정과 제습이 모두 가능한 제품을 주문한 이유다.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 김경환 교사는 요즘 높은 습도 때문에 마음고생이 상당하다. 더위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불쾌지수와 예민함을 높이는 습기는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김경환 교사는 공기청정제습기를 발견하자마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었다. “안 그래도 어떻게 해야 가을장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습도만 낮춰도 사무실이 한층 쾌적해진다고 하니, 좋은 환경에서 더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겠네요.”

복지과에서 구입 보조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최봉수 교사도 공기청정제습기를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로 꼽았다. 그 또한 더욱 일하기 좋은 업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이 쾌적해지면 동료, 수용자, 민원인을 향한 배려심과 존중심도 더욱 깊어질 겁니다. 제습기 설치를 계기로, 먼저 저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호반 따라 낭만이 깃든 추억 여행지, 춘천

춘천은 추억 여행의 '원조' 도시다. 학창 시절 엠티를 다니던 경춘선의 종착역이었고,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은 청춘을 위로하던 호반 나들이 코스였다. 쾌속 열차가 오가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추억으로 향하는 길도 빨라졌다. 춘천교도소는 중앙고속도로와 춘천이 만나는 동내면에 위치해 있다.



춘천으로 향하는 '청춘' 열차

춘천교도소에는 110여 년의 세월이 깃들어 있다. 1909년 경성감옥 춘천분감으로 문을 열었으며 춘천형무소(1946년), 춘천교도소(1961년) 시절을 거쳤다. 춘천교도소가 현 위치인 동내면에 옮겨 온 것은 1981년의 일이다. 서울~춘천 간 철도가 1939년 개통됐으니 춘천교도소는 100여 년간 도시의 변모와 시간을 함께한 셈이다.

춘천으로 향하는 경춘선 열차 이름도 'TX-청춘'으로 바뀌었다. 청량리의 '청', 춘천의 '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는데 2층 기차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생경하다. 고속열차는 서울~춘천 간을 1시간 만에 주파한다. 차창에 비껴 흐르는 풍경처럼 추억 나들이도 '청춘'과 함께 빠르게 달려간다.

춘천은 많이 변했다. 의암호 변의 춘천역부터 번쩍번쩍해졌다. 역에서 받아든 춘천 지도를 보면 춘천 명동에만 있는 줄 알았던 닭갈비 골목이 어림잡아 일곱 곳이다. 웬만한 식당은 서너 집 건너 한 곳이 닭갈비, 막국수 간판을 내걸고 있다.

서민들의 삶과 향수, 춘천중앙시장

춘천중앙시장은 춘천의 역사와 추억의 궤를 같이한다. 일제강점기부터 문을 열었던 시장은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되며 모습을 감췄다가 1952년에 다시 장이 서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수십 년 전통을 간직한 가게가 여러 곳이다. 내장 골목에는 길목에 소, 돼지의 내장을 진열해 놓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전쟁 후 순대를 함지에 이고 다니며 팔다 정착한 원조집도 있고, 60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끓여 오던 순댓국을 며느리가 대를 이어 내놓는 가게도 남아 있다. 소문난 닭집 옆에는 직접 뽑아 말린 건면을 파는 황소표 국숫집이 좌판을 맞춘다.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이제 '낭만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변신 중이다.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벽화가 그려졌고 버스킹이 열리며, 춘천의 옛이야기와 시장을 잇는 산책길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시장 인근, 춘천 명동길은 여전히 북적북적하다. 명동길 초입에는 세월이 흘러도 드라마 <겨울연가>의 흔적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종종 눈에 띈다. 명동길은 유명한 춘천 닭갈비 골목으로 이어진다. 초입에 닭 모형을 그려져 있는 흥미로운 모양새다. 명동길은 북한강변 남이섬과 함께 추억 여행의 오랜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근대사 서린 망대 골목, 죽림동 성당

남만시장에서 명동길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골목 산책은 분위기가 색다르다. 작은 분식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간식 골목을 지나면 망대 골목 입구다. 망대 골목은 권진규 조각가가 춘천고등학교 재학 시절 하숙하며 학창 시절을 보내고, 박수근 화백이 은사가 있던 춘천에 와서 유화를 그리고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망대 인근 비탈에 집을 지어 살면서 달동네가 형성됐다고 한다. 망대가 있던 언덕 끝에 오르면 약사동 일대 거리와 공지천이 내려다보인다. 망대길과 나란히 늘어진 약사리고개는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이다. 고갯길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죽림동 성당이 자리 잡았다. 죽림동 성당은 한국전쟁 때도 포화로부터 지켜 낸 곳이다.

춘천을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하려면 구봉산 전망대로 향한다. 구봉산 정상에는 카페 거리가 조성돼 있다. 카페 발코니에서 서면 춘천 시내와 의암호 전경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이곳은 격무에 지친 춘천교도소 직원들이 가을 힐링 코스로 방문하기 좋다.



애니메이션박물관과 김유정문학촌

도시를 에워싼 북한강과 호수는 춘천 낭만 여행의 훌륭한 조력자다. 어느 물길을 서성거리든 탐스러운 경치를 만날 수 있다. 소양강치너상이 들어선 의암호에는 햇빛이 은은하게 부서진다.

최근 춘천에서 가족 나들이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은 중도 관광지 건너 애니메이션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만화 속에 등장하는 세계 각국의 캐릭터들이 전시돼 있으며 각종 체험거리도 가득하다. 애니메이션박물관 옆 새롭게 단장한 토이로봇관은 로봇 권투, 로봇 댄스 체험 등이 인기다. 춘천교도소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길 권한다.

강길 따라 메밀꽃 피어나는 강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초가를 향취가 완연하다. 폐철로가 남은 강촌행 길목에는 김유정역이 들어서 있다. 소설가 김유정의 옛 살터를 기려 역과 마을에 소설가의 이름을 붙였다. 김유정 문학촌에는 작가의 고향인 신동면 실레마을의 생가를 복원해 놓았다. <봄봄> <동백꽃> 등 소설 속 장면을 재현한 동상을 구경하고, 작품의 배경이 된 실레이야기길을 둘러본다. 김유정역에 조성된 레일파크는 책 조형물 카페, 강촌역을 오가는 것으로 오붓한 가을 휴식을 돕는다.



'춘천만의 맛' 닭갈비 & 막국수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의 메카다. 먼저 닭갈비는 맛과 개성이 제각각이다. 매콤한 맛의 고추장 닭갈비가 대세지만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닭갈비, 담백한 소금 닭갈비도 취향에 따라 맛볼 수 있다. 최근에는 봄비는 도심 명동을 피해 외지인들이 온의동 닭갈비 골목을 찾고 있다. 신복읍 '토담 숯불닭갈비', 조양동 '명동산골닭갈비', 후평동 '우성닭갈비'가 닭갈비 식당으로 잘 알려진 곳들이다. 닭갈비와 어깨를 견주는 춘천의 음식은 막국수다. 춘천에 막국수체험박물관이 별도로 있을 정도다. 춘천 대표 막국수 가게인 약사동 남부 막국수는 문을 연 지 50년을 넘어서다. 고춧가루로 간하고,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비벼 먹는 독특한 전통은 예전 모습 그대로다. 신복읍 일대의 '쌈밭막국수', '유포리 막국수', '오수물막국수' 등도 씹살한 메밀과 동치미 국물을 내세운 춘천 막국수의 계보를 잇는 명가들이다.



지구를 지키고 가족의 건강도 지켜요!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식단으로

고기는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위기 징후가 드러나고 현대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먹지 않을 때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고기 없는 월요일 어때요?” 폴 매카트니가 만든 변화의 물결

인간이 살아가는 땅의 80%가 동물 사육에 사용되면서 매년 우리나라 땅 크기만큼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숲이 사라지면 그 속에 사는 생물 종이 멸종하고 그만큼 기후변화가 가속화한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우리가 매일 타는 교통수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공장식 축산에 따른 생태 파괴가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자는 작은 실천이 바로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을 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팝 밴드 비틀스의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유럽의 회에서 제안하면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뉴욕시는 공공 급식 식단에 주 1회 채식 구성을 의무화했고 스웨덴과 프랑스의 교육위원회도 주 1회 채식 의무화를 선언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 전북 등의 초·중·고교에서는 매주 또는 월 1회 학교에서 고기반찬 없는 급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풀무원, 샘표 등을 비롯한 기업에서도 주 1회 채식 급식을 실천하고 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을 1년 동안 실천할 때 지구상에 생기는 변화



※ 출처: ‘Meat Free Monday’ 공식 홈페이지

고기 소비를 줄이면 우리 몸도 더 건강해져요

그래도 여전히 ‘나 한 사람이 고기 안 먹는다고 기후 위기가 안 오겠냐’라는 회의감이 든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는 지난 수십 년간 외식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문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늘어났다. 오늘날 한국인 한 명이 1년간 섭취하는 육류의 양은 55.89kg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섭취량이 가장 높은 미국(98.60kg)의 60%에 육박하는 수치다. 즉 밥 위주의 전통적 곡물과 채식 유형의 식생활 비중이 줄어들고 육류 및 유지류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 변화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동맥경화 등과 같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육을 담배, 석면, 플루토늄과 같은 등급의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WHO의 기준에 따르면 붉은 고기는 2군 발암물질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고기가 몸에 좋다’ 혹은 ‘고기만이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브로콜리나 통곡물,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 더불어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이번 호 월간 <교정>에 소개한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에 동참해 봅시다. 가족과 함께한 건강한 도전과 실천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선정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5,000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일주일 중 하루 채식으로 건강 챙기고 지구도 지켜요

어떤 동기로 시작하든 식습관을 바꾸는 시도는 결코 쉽지 않은 실천이다.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려 하기보다 ‘요즘 시대에 고기를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키는 만큼 시작해 보자. 하루 한 끼 채식 또는 자주 먹는 음식의 성분 중 한 가지 식자재를 채식으로 바꿔 보는 것도 좋다. 또 고기를 먹더라도 조금씩은 줄이고, 그 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올라오는지 가족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이러한 고민과 대화의 시간은 자녀가 건강한 식단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평생의 식습관을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집에서 실천해 보는 고기 없는 월요일



- 필수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콩과 두부, 된장이 포함된 식단을 구성해요 **YES** **NO**
 - 단백질과 철이 풍부한 아몬드와 땅콩, 호두 등 견과류를 함께 먹어요 **YES** **NO**
 - 브로콜리나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로 무기질과 비타민을 섭취해요 **YES** **NO**
 - 현미와 통밀 등 도정률이 낮은 통곡물에도 단백질이 풍부해요 **YES** **NO**
 - 고기 소비가 생태계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요 **YES** **NO**
- 항목당 **YES는 2점, NO는 -2점. 만점은 10점** 10점 만점 친환경 히어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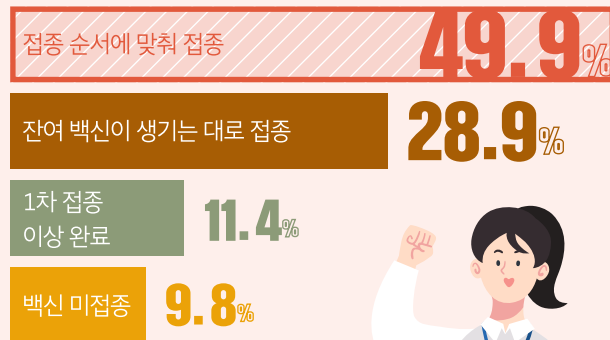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장인의 백신 접종 계획과 현황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집단감염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접종은 집단면역과 일상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현재 직장인들의 백신 접종 계획과 현황을 살펴봤다.

직장인 10명 중 9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해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을 이미 했거나(11.4%, 1차 접종 이상 완료) 할 계획(78.8%)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들 중 49.9%는 '접종 순서에 맞춰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고, 28.9%는 '잔여 백신이 생기는 대로 맞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9.8%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집단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지난 7월 교정공무원의 99.6%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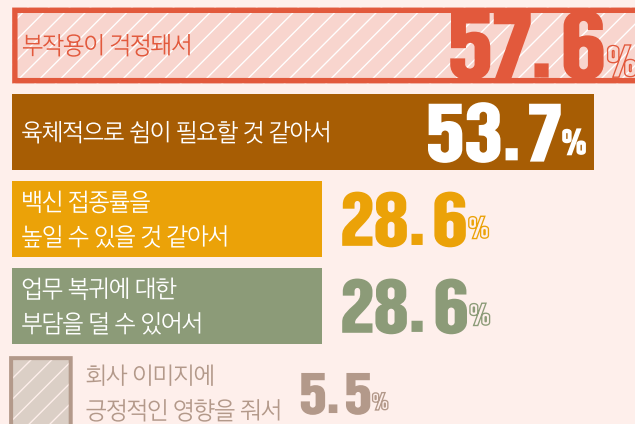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



대부분의 직장인 '코로나19 백신 휴가제' 찬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백신 휴가제 찬성 의견은 96.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복수 응답) '부작용이 걱정돼서'가 응답률 57.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53.7%),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28.6%), '업무 복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28.6%) 등이었다. 또한 직장인들은 유급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다면 평균 2.7일이 적당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도입한 '백신 휴가제'는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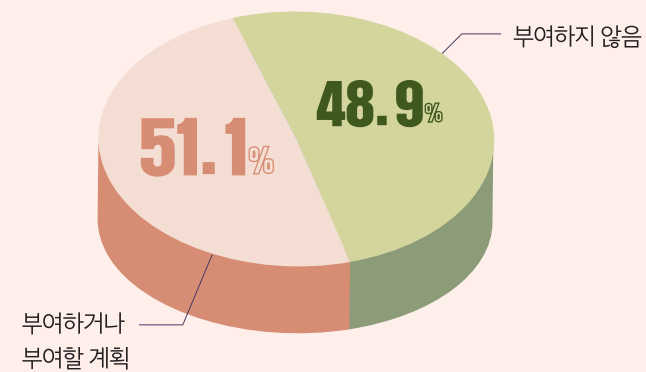
코로나19 백신 휴가제 찬성 이유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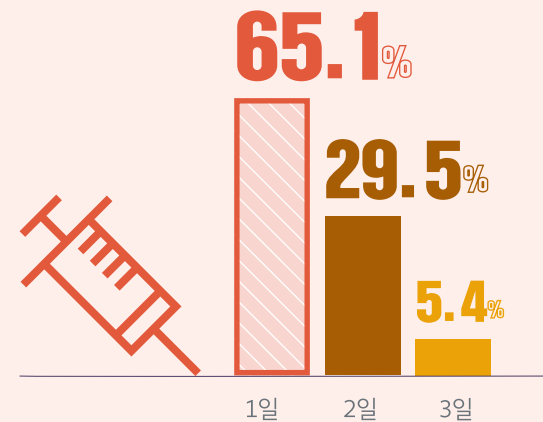
기업 2곳 중 1곳은 백신 휴가 부여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원하는 코로나19 백신 휴가에 대한 기업의 생각은 어떨까?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1%가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복수 응답) '백신 이상 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51.6%)가 1위였다. 다음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32.5%),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26.9%), '혹시 모를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해서'(22.3%) 등의 순이었다. 부여하는 휴가 형태는 '유급휴가'가 85.7%로 '무급휴가'(1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신 휴가는 1회 접종당 평균 1.4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일'(65.1%), '2일'(29.5%), '3일'(5.4%) 순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1회 접종당 부여하는 백신 휴가 일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실천 문화

코로나19 유행 후 집단감염을 겪은 교정시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교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으며, 외부 접촉 차단을 위해 수용자 접견 방식을 바꾸는 등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정시설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교정공무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1 일상생활 속 예방 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기
- 외출 시는 물론 실내에서도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기
-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청소·소독하기

2 음식점 방문 시 예방 수칙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고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찜개, 반찬 등 음식은 각자 그릇에 덜어 먹기
- 공용 수저가 아닌 개별 포장, 개인용 수저 사용
-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식사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하는 소통의 기술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전히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착각을 한다. 이는 사실 소통과 평판이 그리 중요하지 않던 20세기에나 통 하던 이야기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평가가 실시간으로 퍼져 나가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실이다. 21세기, 이타성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간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자기의 것을 주변과 많이 나누는 ‘기버(giver)’, 준 것보다 더 바라는 ‘테이커(taker)’, 딱 받은 만큼 돌려주는 ‘매처(matcher)’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때 기버는, 다시 한없이 타인에게 베풀다 녹초가 되는 ‘자기가 없는 기버(selfless giver)’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성공한 기버(이타적 기버, otherish giver)’로 나눌 수 있다. 늘 남의 호구가 되는 ‘자기가 없는 기버’와 달리 ‘성공한 기버’는 타인에게 베풀지만, 자신의 성공 역시 지혜롭게 안배하는 유형이다.

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CEO 가운데 테이커나 매처보다는 기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들의 성공 동력은 주변의 좋은 평판이다. 테이커나 매처는 위로 오를수록, 연차가 오래될수록 주변에서 인심을 잃고 배척당하거나 심지어 버림받지만 성공한 기버만은 점차 많은 옹호자를 모으며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성공한 기버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자신의 이기심을 진작 깨닫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좀 더 평판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법이나 대화 예절을 몸에 익히거나 봉사나 선행을 조금 더 실천하는 일도 필

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족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사실 대화법이나 예절을 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대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감 능력 부족에 있다. 사람마다 공감 능력 수준 역시 다르다.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공감 제로 유형부터 공감 능력이 출중한 공감형 인재까지 공감 능력의 격차가 큰 것이다. 공감 능력은 유전이나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타고난 공감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 좀처럼 타인의 마음을 읽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연구에 따르면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다. 영국 철학자 로먼 크르즈나릭은 공감 능력을 기르는 원칙을 잘 정리한 바 있다. 다음 6가지 원칙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 ❶ 뇌의 공감 회로를 움직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 ❷ 매사에 내가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 ❸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 ❹ 타인의 마음을 읽는 대화 기술을 높이기 위해 힘쓴다.
- ❺ 예술 작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한다.
- ❻ 이타적인 사회 활동이나 운동에 참여한다.

만약 평상시 감성적인 드라마나 휴먼 영화를 좀처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장르의 작품부터 의식적으로 감상해 보자. 또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 보거나 피하던 반려동물 키우기 같은 일에 용기 내어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공감 능력을 키우고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비폭력 대화

공감 능력을 조금씩 키워 나가면서 꼭 도전해 봐야 할 일은 상대와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대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에게 상처 주기 쉽다. 대개는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상대와 평화롭게 대화하고픈 욕구가 있다. 다만 현실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감정적인 말, 상대를 헐치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대화를 차단하고, 다시 서로를 가슴끼리 잇는 방법이 심리학자 마셜 B. 로젠버그가 창안한 ‘비폭력 대화’다. 비폭력 대화의 기본 수칙만 잘 따라도 상대와의 대화를 보다 공감적으로, 따뜻

하게 이끌 수 있다. 상처 주는 말은 만만한 아이에게 더욱 하기 쉬우니 첫 상대가 아이라면 좋을 것이다.

비폭력 대화의 첫째 단계는 관찰(observation)이다. 대화하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벌어진 상황을 아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지수는 숙제를 하지 않고 있구나.”(○)

2단계는 느낌(feeling)이다. 상대의 언행이나 지금 서로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도 자신의 평가, 해석은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엄마는 지수가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돼.”(○)

3단계는 자신의 욕구(need)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짜 욕구를 숨기고,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 즉각적인 감정에 치우쳐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한다. 이때 냉정을 되찾고 진짜 욕구를 찾아서 상대에게 전해야 한다.

“너, 정말 계속 이렇게 숙제 안 하면 엄마가 혼난다고 했지!”(x)

“지수야, 넌 왜 매번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x)

“엄마는 우리 지수가 숙제를 미리 잘하는 멋진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

비폭력 대화의 마지막은 부탁(request)이다. 진심 어린 부탁 이라면 상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부탁의 말이 자신의 욕구를 관찰하는 일방적인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 서로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비폭력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엄마는 지수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할 테니, 지수는 숙제를 미리 하면 어떨까? 숙제를 마치고 엄마랑 맛있게 먹자.”(○)

대화를 나눌 때 끓어오르는 충동 뇌, 감정 뇌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상대와 나의 욕구를 서로 통합하는 비폭력 대화를 나눠 보기 바란다. 존중과 배려는 이런 작은 공감적 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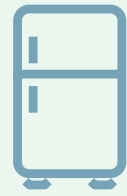
알쓸꿀잡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식중독 편

식중독은 유해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증상인 구토와 설사부터 심할 경우 호흡곤란과 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높은 기온으로 식중독의 원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름철과 9월까지의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중독 예방법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식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꿀팁을 알아보자.

식중독을 예방하는 작은 습관

1



식품을 구분해서 보관해요

조리 후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따로 구분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덮개를 사용해 냉장·냉동 보관한다. 날 음식·생선·육류는 냉장고 하단에, 익힌 음식·채소·가공품은 냉장고 상단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식자재를 안전하게 섭취해요

여름철에는 음식을 익혀 먹는 게 안전하며, 특히 굴이나 조개 등의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좋다. 물은 되도록 끓여 마시고, 해동한 식품은 재냉동하지 않으며 이미 조리된 음식도 반드시 재가열한 후 먹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3



배식 안전에 유의해요

조리 도구와 조리 시설은 자주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좋다. 조리가 끝난 식품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한다. 남은 식품은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하는데 보통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찬 음식은 5℃ 이하를 유지시킨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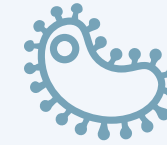


교차 오염에 주의해요

식자재가 바뀔 때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조리 기구의 세척과 소독도 꼼꼼히 해야 한다. 만약 생닭을 만졌다면 이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다른 식자재를 취급해야 한다. 식자재 손질 시에는 '채소 ▶ 육류 ▶ 어류 ▶ 가금류' 순서로 하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균

열에 약하고 건조한 상태에 강한 '살모넬라균'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62~65℃에서 30분 가열하는 저온 살균으로도 충분히 사멸된다. 그러나 가열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만들어 놓은 음식이 오염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조리된 음식은 신속히 섭취해야 한다. 또 남은 음식은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먹을 때는 74℃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해산물과 어패류에 붙어 있는 '장염비브리오균'



장염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해 60℃에서 15분, 100℃에서 2~3분 내로 사멸한다. 해산물과 어패류의 표피·내장·아가미 등에 붙은 장염비브리오균이 냉장고·도마·행주·칼 및 조리자의 손을 통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산물과 어패류를 깨끗하게 씻고, 헹감용 칼과 도마는 다른 식자재용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집단 조리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웰치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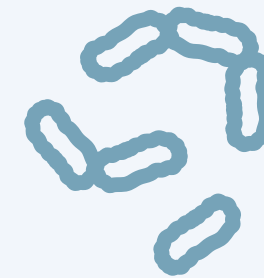


웰치균은 100℃에서 4시간 가열해도 살아남을 정도로 열에 강하고, 공기가 없는 경우에 증식하는 균이다. 대량의 식사를 만들기 위해 가열 조리하면 내부 공기가 방출돼 공기가 없는 조건을 만들어 웰치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켜 '집단 조리 식중독'이라고도 불린다.

파괴되지 않는 독소를 만드는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은 자체적으로 독소를 만든다. 균 자체는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라지지만, 독소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감염될 경우에는 설사보다는 구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평상시 개인위생 관리와 위생장갑 착용, 조리 도구 청결 유지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오염된 식수와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콜레라균'

콜레라균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섭취해 1차 감염이 발생한다. 감염된 환자의 대변을 통해 다시 식수나 음식물이 오염되면 2차 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지 대개 18~24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짧게는 6시간 이내, 길게는 5일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만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장 집 살 계획 없어도 미리 준비하기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무순위 청약에 25만 명이 몰렸다. 특히 1가구를 모집한 84㎡에는 12만 400명이 신청해 '12만 400 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높았던 배경에는 무순위란 조건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것은 가격이 었다. 현 시세가 30억~40억 원인데 14억~19억 원에 분양하니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15억 원가량을 버는 셈이었다. 말 그대로 진짜 로또다.

편차는 조금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래 주택청약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다. 당첨되는 즉시 수억 원의 목돈을 쥐는 셈이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추첨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젊은 사람이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연 1.8% 금리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1년일 땐 연 금리가 1.5%이고, 2년 이상부터는 1.8%로 책정된다. 지금은 기준 금리가 1%를 밑도는 시기라 청약통장 금리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수준이다. 추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청약통장 금리도 올라갈 전망이다.

일반형 말고 '청년 우대형'이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2년 이상일 때 연 3.3%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 공제하고 계산)에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소득공제다. 청년 우대형이든 일

반형이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은 여기에 더해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라는 추가 혜택이 있다.

청약통장은 통상 월 10만 원씩 납입하라고 하는데, 자금 여유가 있다면 월 20만 원씩 넣으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 20만 원씩 입금하면 연 240만 원을 불입하게 되므로 40%인 96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5년 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받은 부분이 추징되기 때문에 혹시나 통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청약 당첨을 뜻함) 당장 해지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시에도 좋은 조건으로 활용 가능

청약통장의 매력은 대출을 받을 때도 입증된다. "난 대출은 받을 계획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알아 두자. 언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지 모르니 말이다.

은행 대출 중에는 가입한 예·적금을 담보로 받는 '예금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대부분 약정된 예금 금리에 1.25% 안팎의 가산세를 더해 책정된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약정금리가 아니라 CD91일물 금리에다 1.25%를 더한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CD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 금리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라 일반 채권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낮다.

8월 17일 기준 CD91일물 금리는 0.72%로,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연 1.97%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금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대출 금리인 만큼, 마이너스 통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청약을 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청약통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단,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금과 이자 모두 통장 해지 시 찾을 수 있다.

청약통장, 사용할 때는 어떻게?

금리나 소득공제 혜택 등도 좋지만, 청약통장의 가장 큰 쓰임새는 결국 청약이다. 특히 요즘처럼 청약 가격이 낮을 때는 투자 매력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라면 일단 청약을 넣어 보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과거 청약저축(국민주택)과 청약부금(소형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이 합쳐진 상품이다. 즉 어느 주택에 청약할 계획이든 이 청약통장 하나면 충분하다.

단, 지역과 주택 형태에 따라 예치금 조건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을 예치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고,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조건을 채워야 한다. 85㎡ 이하만 청약할 생각이라면 서울 거주자라고 해도 300만 원만 예치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땐 금액은 물론,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1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할 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최소 2년간 연체 없이 납부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다면 매해 240만 원씩 4~6년간 납부해도 되고, 빨리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조건을 충족하고 싶다면 2년간 꾸준히 내다가 막판에 몰아서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가점이 높아야 좋은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높는데, 가점은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하고 가구원 수도 많아야 한다. 젊은 나이이거나 가구원 수가 적다면 가점이 아닌 추첨제를 노려야 한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의 85㎡ 이하의 무조건 가점제로만 뽑는다. 대형 평형에서만 추첨이 이뤄지는 데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니 본인의 자금 사정을 꼼꼼히 확인한 뒤 청약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가입해 줄 때는 만 17세부터 19세까지 10만 원씩 24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성년자는 납부 기간이 2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2020 도쿄올림픽이 남긴 것

코로나 시대의 축제,

2020 도쿄올림픽이 선사한 놀라운 순간들에 대하여



코로나 시국에 올림픽이라니,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진정세는커녕 기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도쿄에서의 올림픽이라니 말이다. '2020'이라는 숫자 자체만으로도 의미심장한 2020 도쿄올림픽은 열려서는 안 될 축제처럼 보였다. 여전히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찾아온 2020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막했고, 생각지 못한 흥분과 감동을 선사했다.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시대에 찾아온 극강의 엔터테인먼트였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목에 걸며 종합 16위를 차지했다. 종합 8위를 차지한 2016 리우올림픽이나 종합 5위를 차지한 2012 런던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금메달 텃밭으로 꼽히는 양궁에서 예년보다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고, 신홍 강호로 올라선 펜싱에서도 선전했고, 체조 도마에서 예상 밖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림픽 공식 종목 채택 이후로 사상 최초 노골드를 기록한 태권도와 올림픽 2연패를 노리던 야구의 노메달을 비롯해 기대 종목의 부진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2020 도쿄올림픽은 예년과 다른 흥분과 열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 그 자체였다.

안산이 쏘아 올린 골드러시

마치 맡겨 놓은 금메달을 찾으러 온 것 같았다. 올림픽마다 대한민국 양궁 팀은 절대 강자였다.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독식하며 4관왕에 올랐다.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팀이 세운 목표는 사상 첫 5관왕이었다. 새롭게 신설된 혼성 단체전은 더 올라갈 곳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양궁 팀에 새로운 목표를 선사했다. 시작부터 조짐이 좋았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대한민국 양궁의 젊은 피 김제덕과 안산은 관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패기 넘치게 활시위를 당겼다.

대체로 조용한 양궁경기장에서 입을 한껏 벌리며 "코리아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김제덕과 그 옆에서 좀처럼 감정을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안산은 결국 뜨겁고 담담하게 과녁을 적중시키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얻은 첫 금메달이었다. 그 뒤로 안산은 여자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고, 김제덕은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처럼 한국 양궁 팀은 목표였던 대회 5관왕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금메달 4개를 목에 걸며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한편 도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산은 첫 금메달을 획득한 혼성 단체전 이후로 SNS를 통해 뜻밖의 논란에 휘말렸다.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 규정하고 이를 공격하는 이들의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시달린 것. 사실상 '논란'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낭비적인 의견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건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의 컨디션이었다.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6연패라는 대기록 도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안산이 시답잖은 논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기우였다. 해풍도 흔들지 못한 집중력을 하찮은 손가락질로 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금메달이 아니라도 괜찮아

이번 도쿄올림픽은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선수 자체를 주목하게 만드는 축제이기도 했다.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해 한국 선수로는 25년 만에 올림픽 남자 육상 높이뛰기 결선까지 진출한 우상혁은 그 자체로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경기를 펼쳤다. 사실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대한민국 육상 높이뛰기 국가대표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었을 것이다. 결선에 진출하기까지, 그리고 결선 경기에 임하는 순간까지도 많은 이들은 그의 존재를 잘 몰랐지 싶다. 하지만 이제는 다들 안다. 그의 도약이 뛰어넘은 건 올림픽 무대에 높게 걸린 장대만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우상혁을 기대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2.33m 높이의 장대를 뛰어넘는 순간 넘어야 할 다음 장대가 걸렸다. 2.35m는 연습 때



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높이였다고 한다. 그렇게 뛰었고, 넘었다. 올림픽 무대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이 새롭게 작성됐다. 그 뒤로 아쉽게 4위에 머물며 메달권에 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상혁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기록에 기뻐했고, 마음껏 환호하며 올림픽을 즐겼다. "진짜 후회 없이 뛰었다"는 그의 말처럼 그 순간 올림픽은 우상혁의 것이었다. 박태환 이후 한국 수영계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른 황선우에게 도쿄올림픽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올림픽 무대였다. 아시아 선수로는 보기 드문 수영 단거리 선수로서 200m, 100m, 50m 자유형에 출전했고, 이 중 200m, 100m 결선에 진출했다. 비록 메달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200m와 100m에서 모두 5위의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200m에서는 박태환이 세운 기록을 깨고 대한민국 신기록을, 100m에서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심지어 아시아 선수로서는 65년 만에 100m 자유형 결선에 진출한 선수가 됐다. 황선우는 자신이 세운 기록을 보고 스스로 놀라워하며 기뻐했다.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라는 원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여자배구의 짜릿함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축구도, 야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둔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배구는 대한민국 올림픽 시청자를 구원하려 온 단 하나의 팀이었다. 한국 여자배구 팀이 속한 예선 A조 다섯 팀 가운데 한국보다 세계 랭킹이 낮은 국가는 단 하나였다. 그러니까 예선 경기 대부분이 첩첩산중이었다는 의미다. 예선에서 탈락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실전은 기세다. 그리고 기세는 이상한 일을 만든다. 그걸 흔히 이번이라고 한다. 이번은 예선 세 번째 경기인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풀세트 접전 승부 끝에 벌어졌다. 한국이 3대 2로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일전에서 전의가 불뛴다. 종목을 불문하고 한일전이란 그런 것이다. 한국도, 일본도 치열했다. 이 경기 역시 풀세트 접전 끝에 듀스 승부까지 이

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승리했다.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상투적인 말에 의미를 붙여넣었다. 그렇게 8강에 진출했지만 세계 4위 팀인 터키가 기다리고 있었다. 역대 전적은 2승 7패로 한국이 열세였고, 최근까지 한국 팀에 국제전 6연패를 안겨 준 상대였다. 승리는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역시 실전은 기세다. 풀세트 접전 끝에 또 한 번 신승을 거뒀다. 더 이상 등수는 상관없었다. 도쿄올림픽 여자배구는 승패와 관계없이 모든 경기가 하이라이트였다. 주장 김연경을 중심으로 원팀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드라마였다. 올림픽이란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자국의 국기를 자신의 몸에 걸고 승부를 펼치는 대회다. 메달을 수상하면 보다 높은 곳에 국기가 게양되지만 그 전에 이미 선수들 몸에 국기가 게양되는 셈이다. 그만큼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들이 국가대표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무대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도 중요하다. 가슴에 단 국기가 무색하지 않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가 벌이는 열전 그 자체가 메달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물론 이왕이면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목에 걸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해도 최선을 다한 선수를 향한 응원은 그 자체로 함께 세계인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의 일원이 되는 길이다. 방구석 1열에서 보는 올림픽이라 해도 그렇다. 이 지난한 감염병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2020'이라는 숫자를 걸고 찾아온 도쿄올림픽이 알려 준 건 그런 것이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올림픽이 아니었다. 결국 이렇게 함께 마주하며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거대한 희망의 불을 붙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 메달의 색깔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세계의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함께하는 축제를 한껏 즐길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세계라는 원팀의 다채로운 개성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2020 도쿄올림픽이라는 코로나 시대의 축제가 피워 올린 거대한 불꽃일 것이다.

Health Infographics

몸의 기둥,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허리는 몸의 중심으로 신체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편두통, 사지 마비, 소화 관련 문제 등 많은 질병이 허리와 연관돼 있다.
모든 장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허리와 관련된 질병을 알아보고 예방해 보자.

허리 디스크

- 정의**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리는 질환
- 원인** 노화로 인한 관절 퇴행, 운동 부족, 교통사고 후 외상, 바르지 못한 자세 등
- 증상**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 발생, 허반신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 빠짐 등
- 치료** 바른 자세 유지, 열·약물·초음파·물리치료, 수술 등

척추협착증

- 정의**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허리 통증 및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 원인**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 증상** 둔부·다리의 통증 및 감각 저하, 걸으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멈추면 덜 해짐 등
- 치료** 적절한 운동과 휴식, 약물·초음파·물리치료, 요추 보조기 등

척추측만증

- 정의**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져 몸이 좌우로 기울거나 돌아가 변형되는 질환
- 원인** 유전적 요인, 다리 꼬고 앉기, 가방 한쪽으로 메기, 근육 질환, 노화 등
- 증상** 요통, 어깨 결림, 두통, 심폐기능 이상, 쉽게 피로함,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못함 등
- 치료**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제 사용, 교감신경계 절단, 명상과 같은 심리 치료 등

척추전방전위증

- 정의** 위 척추가 아래 척추보다 배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 원인** 척추 관절 골절, 노화로 인한 관절 퇴행, 척추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 등
- 증상** 허리 통증, 다리가 저리고 아픔, 걸을 때 통증, 자세 이상, 허리 구부리기 힘들 등
- 치료** 약물·주사·물리치료, 수술적 치료, 근육 강화 운동 및 스트레칭 등

Healthy Guide

생활 습관 바로잡고, '허리' 바로 세우자

허리 관련 질환의 발생 원인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 습관에 녹아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허리 건강에 좋은 식품 섭취



Healthy Guide 01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노른자'

달걀노른자를 매일 1개 섭취하면 허리 디스크 완화에 도움 되는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강화와 허리 건강에 좋아요.



Healthy Guide 02 허리 건강에 효과적인 '부추'

부추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소는 허리를 따뜻하게 해 주고 자율신경을 자극해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척추 만드는 생활 습관



Healthy Guide 03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는 꼬지 말고 몸통과 무릎은 직각을 유지해 척추를 바르게 세워요.



Healthy Guide 04 주기적으로 스트레칭하기

1시간에 한 번씩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신체를 이완시켜요.

나도 혹시?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한쪽 신발 밑창이 더 많이 닳아 있다.
- 목이 뻐뻐하고 어깨, 팔 등이 저린다.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 재채기나 기침할 때, 또는 배변 시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
- 바른 자세로 서서 뒤꿈치를 이용해 걸었을 때 통증이 있다.
-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다.

	문
사	득
람	
과	생
의	각
	나
시	는
간	

🕒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 세계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소위 징역의 시간은 흘러간다. 또한 교도관으로서 나의 시간도 멈추지 않고 정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교도관으로서 첫걸음마를 시작한 지 벌써 19년이 흘렀다. 이 정도면 걸음마를 떼고 달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교정 업무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신중함을 잃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에 아직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속하고 빠른 것은 좋지만 ‘수용자 관리’라는 교정행정 업무는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기에 확실하고 안전하게,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조심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01년 9급 교정직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후 첫 발령지는 천안소년교도소(현 천안교도소)였다. 낯선 지역과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용자를 대면하는 일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과 달리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보안 1부에 발령을 받아 신규 직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나 보조 서무 업무를 맡았다. 그때 나는 직원들 이름은 물론 임시 배치, 폐방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태로 일하다 보니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출근하기 싫어지더니 급기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당시 당직 계장님이셨던 김동구 계장님과 한상원 주임님, 박용규 부장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고, 1년의 세월을 무사히 보냈다. 그 이후 고향에서 가까운 순천교도소로 전보됐고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교정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 그러다 최근 초과근무 문제로 보안과 보조 서무와 통화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선 넘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예전에 보조 서무를 맡았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초과근무 내역이 잘못 기재돼 미안해하는 후배를 보니 불평보다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의 힘든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예전에 밥 대신 먹을 수 있다면 한 끼를 해결하겠다 싶을 만큼 실수가 잦았기 때문이다.

🕒 보조 서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그 당시 나는 ‘언제 진급해서 편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교정행정에서 편하거나 수월한 업무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내가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일의 책임감과 어려움을 모르기에 주관적으로 편한 업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교정공무원의 업무인 수용 관리는 죄를 짓고 들어와 형기를 보내는 수용자에 대한 업무지만 그 근본은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다.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야 하는 일이기에 교정공무원들도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수용자를 관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감정까지 관리하면서 업무를 집행하기에 교정공무원이 결코 수월한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 이럴 때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 나의 첫 당직 계장님이셨던 김동구 계장님. 그분은 항상 수용자를 대할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셨다. 만기 출소하는 수용자들에게는 다시는 교도소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다. 그 모습은 19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다.

🕒 지난해 9월경 김동구 계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계장님은 “이제 저는 정년퇴임을 하면서 교정직을 떠납니다. 정열 씨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교도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세요”라는 사회의 말씀과 함께 안부를 물으셨다. 그동안 특별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계장님의 그 한마디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계장님과 통화를 마치고 그분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교도관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마무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 2021년 7월 19일에는 다수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선임 주임님들이 근속 계장을 달고 다른 곳으로 전보돼 가셨고 새로운 분들이 순천교도소로 왔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 또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현재 보조 서무 업무를 맡은 직원이 순천교도소를 지키는 기둥으로 자랄 것이다. 김동구 계장님은 나에게 교정현장이 힘들지만 참 보람된 곳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 나도 젊은 직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김동구 계장님! 늦은 인사지만 교정을 위해 너무 많은 헌신을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퇴직하셨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하	늘	나	라	로	떠	난			
		사	랑	하	는	남	편	에	게

† 저는 현재 개방 작업장에서 1년 넘도록 열심히 교도작업을 하며 수용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 두고 먼저 떠나간 남편의 첫 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받은 고통과 상처들은 이제 다 잊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더 정성껏 아침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구속되면 1~2년은 보지 못할 아이들을 꼭 안아 주며 돌아선 뒤 벌써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 제가 구속된 뒤 남편 회사에까지 소문이 났는데, 남편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리고 합의를 구하는 등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혼자 견뎌왔습니다. 제 잘못이 자신의 잘못된 것처럼 많은 자책을 하며 괴로워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10분의 면회 시간 내내 이혼해 달라며 철부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돌아설 때마다 정작 남편은 어느 곳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타들어 가는 속을 솔로 달랬었나 봅니다.

† 남편과 통화한 2020년 6월 27일, 교도작업 중 계장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한테 민원실로 연락이 왔는데 남편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많이 위독하대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신이 있다면 남편이 불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발 살아 있어 주기를 몇 날 며칠을 바랐었는지... 결국 남편은 며칠 후인 2020년 7월 2일, 마흔여섯 살이란 나이에 어린 딸과 아들을 철없는 아내에게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조차 지켜 주지 못한 채 장례를 마쳤고, 저는 가족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한 채 가족들만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 남편은 주말이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매주 가족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닐 정도로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저에게는 바다 같은 남편이었고 존경스러운 배우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만 같아 아직도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남편의 첫 기일이 돌아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속 남편 이름 옆에 쓰인 사망이란 두 글자만 봐도 그동안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어느덧 아홉 살이 된 딸은 엄마마저 잘못될까봐 “엄마 건강 잘 챙겨, 꼭!” 하는데,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 남편의 첫 기일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 “남편, 그동안 주었던 사랑과 배려, 평생 가슴에 품고 아이들 반듯하게 잘 키울게요. 출소하는 날 제일 먼저 달려가 당신 마지막 배웅 못 한 것 용서를 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게 좋아했던 두부도 잊지 않고 사 갈게요. 철부지 아내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이제는 다 잊고 편히 쉬세요! 내 인생에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내 손,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아 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 그리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용기 내라며 이야기해 주신 개방동 직원들의 말씀과 응원 덕분에 잘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적 연구를 통한 전임 교종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①

천정환**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III.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 IV. 결어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종교인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방식인 자원봉사자로서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고착되어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경로 혁신적 방안의 하나로 전임 교종(矯宗)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임 교종제 도입에서 이해관계자인 교정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인식을 자연스럽고 개방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 의제화와 입법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서술하였다.

특히 2009년에 법무부가 전임 교종제를 도입하려다가 찬반이 비슷해 제도 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므로 법적, 과학적 근거만 충분히 입증되면 제도의 입법화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 전임 교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 차원이어서 과학적·실천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접근의 하나로 실증적 연구인 질적 연구를 통해 전임 교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원봉사식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고질화된 문제점에 대해 모든 연구 참여자가 깊이 인식하였으며 근본적 대안으로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전임 교종제의 도입방식인 채용 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해관계자인 교도관과 종교위원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보류되어왔던 전임 교종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전임 교종제 도입에 큰 거부점이 없고 종교계, 학계 등 접근점(access point)이 강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정책 의제화를 통해 전임 교종제를 실시하는 것이 헌법 이념과 비교법적 차원 및 종교교육형주의의 실효성 확보에서 필요하다.

주제어 전임 교종, 종교, 교육형주의, 수용자, 질적 연구

I. 서론

범죄인에 대한 형벌 이념인 교육형주의의 하나인 종교교육형주의는 종교를 통해서 범죄인을 교화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강력한 교화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clear, cole(1994), 임봉기(2003), 김안식(2009), 김요한(2007), 이명현(2011), 유용원(2017) 등의 많은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재사회화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교육형주의의 주체인 종교인이나 종교위원이 교정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는 형식에는 전임직으로서의 종교위원인 전임 교종(矯宗)제도와 자원봉사자로서의 종교위원인 비전임 교종제도가 있는바 외국은 형벌 이념과 역사적·문화적 성격 등에 의해 전임 교종제나 비전임 교종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령 미국은 교정채플린이 있는바(김재순, 1999) 이는 공무원으로의 전임 교종위원이다. 유럽 국가들 일부도 교정시설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며(김안식, 2009), 캐나다도 전

임 교종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는 제국주의적인 불교적 전임 교종제가 실시되었으며, 제1공화국 시대에는 친미주의를 공통적인 배경으로 한 개신교와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종교적 이익의 결합 산물인 형목(刑牧)이라는 개신교적인 전임 교종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이후에 위헌 논란으로 형목제도가 폐지되면서 비전임 교종인 자원봉사자로서의 종교위원들이 수용자의 종교교화에 참여하여 오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개신교는 사실상 전도의 목적이 가장 크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체나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활발한 교정사역을 통하여 수용자의 교화에 너무나 헌신적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정위원의 실태는 해마다 수용자 수는 감소함에도 교정위원의 하나인 종교위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령 국영교정시설에서 교정위원제도가 실시된 1984년에 종교위원이 1,531명이었으나 갈수록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1,864명으로 증가하였으며(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2018), 작년인 2020년 기준 전체 교정위원인 4,592명에서 종교위원이 가장 많은 1,864명으로(윤종우, 2020) 전체 교정위원의 약 4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종교교화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준종교위원까지 합치면 종교교화에 참여하는 종교인은 외부 자원봉사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영교도소의 30% 내외의 재범률 저하나 교정사고 감소에 의미 있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독교적 전임 교종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최근 3년간 재범률이 6.9%이고 교정사고율은 거의 없다는 사실(민영교도소, 2020년 내부자료)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에서 비전임 교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술적 차원이나 실무적 차원에서 여러 개선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임봉기(2003), 민경화(1998), 박석정(2007), 김지명(2018) 등은 주로 완장형, 명예형 등 종교위원의 행태적 문제점과 위촉 과정의 문제점 등에 관한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김진영(2006) 등은 교정시설 내의 종교교화의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천정환(2012)은 종교교화의 자본화, 관료화, 계량화 등의 측면에서 지적하였으며 손동신(2009) 등은 기존의 종교교화가 공황적 종교교화에 치우쳐 교정사역 등 종교교화의 과학성에 근거한 전문성과 방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인철(2004)은 수용자 개인의 영혼구원에 치우치는 보수화된 종교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채한욱(2009)은 프로그램의 빈약, 선교의 단편성, 교도소에 대한 종교교정위원의 종속성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는 기존의 비전임직으로서의 종교위원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면서 행태 등 미시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거

시적 측면인 제도적 개혁에 대한 접근을 간과하는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임 교종의 필요성 측면에서 아예 비전임 교종제 대신에 전임직으로서의 교종제도 도입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전임 교종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는 종교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는바 먼저 이정찬(1999), 이인철(2004), 지정수(2015), 김성기(2015) 등은 주로 종교적 측면에서 교정시설에서의 전임 교종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는데 다만 종교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학술적 성격이 부족한 점이 한계였다. 이에 대하여 윤종우(2020)는 교정위원 대신 상주 종교위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교정 실무적 차원에서 주장하였으며, 천정환(2021)은 전임 교종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법적·형사 정책적 측면 등에서 주장하였고, 김지명(2015)은 종교담당관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탈종교적 차원에서 전임 교종제 도입의 필요성을 서술하여 학술적 의의는 있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한 과학성의 한계가 있다. 전임 교종제의 입법적 도입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의제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의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과학적인 학술적 차원에서 전임 교종제 도입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에 관해 서술함으로써 전임 교종제 도입의 입법적 동력의 기초로 삼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은 전·현직 교도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현재의 비전임 교종제도인 종교위원의 문제점 및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과 도입 시 실현방법에 관하여 조사하여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또 하나의 과학적 연구인 양적 접근이 추후 보완되어야 하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종교위원들에 대한 교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점에서 추후 종교별로 종교위원들에 대한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과 양적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는 계량적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와 객관성 확보와 연구자의 주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20S1A5A2A01040851)

** 동서대 경찰학과 부교수(928jh@hanmail.net).
▶ 접수일(2021. 3. 17.), 심사일(2021. 4. 16.), 수정일(2021. 4. 19.), 게재확정일(2021. 4. 27.)

관적 판단에 의지해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질적 연구의 단점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김상욱, 2004) 숨겨진 맥락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보완적 접근인 질적 연구는 ‘연구의 맥락’과 ‘현장의 맥락’을 일치시켜(탈맥락화) 자연적 맥락에서 참여하여 세상의 복잡한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조용환, 1999:12 면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주제에 대해서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실효적이고 문화적 맥락이 게재된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¹⁾ 그것은 폐쇄형적인 제한된 질문을 속성으로 하는 양적 접근으로는 깊고 다양한 맥락이 포함된 실질적인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아래의 <표 1>은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보다 다양한 의견을 채집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종교업무의 현장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 현직 교도관 5명과 퇴직 교도관 2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주제에 관해 균형적 관점을 채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서의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이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40대에서 60대까지, 학력은 고졸부터 대학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로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5년부터 37년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직급은 7급에서 3급까지의 다양한 계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²⁾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정공무원 경력자							
참여자	성별	연령(대)	근무부서	학력	근무경력	직급	재직여부
1	남	50대	기타	전문대 졸업	20년 이상 30년 미만	6급(교감)	재직
2	남	40대	보안	고교 졸업	20년 이상 30년 미만	7급(교유)	재직
3	남	40대	교화	대학교 졸업	15년	7급(교유)	재직
4	남	50대	기타	대학원 졸업	20년 이상 30년 미만	6급(교감)	재직
5	남	50대	총괄	대학원 졸업	30년	3급(고위공무원)	재직
6	남	60대	보안	고교 졸업	37년	6급(교감)	퇴직
7	남	60대	총괄	대학원 졸업	34년	3급(고위공무원)	퇴직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집단심층면접 대상자로 A교도소 소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는 교도관 4명을 소개 받았으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자가 다양하고 균형된 관점을 가진 이들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한바 기간이 비교적 긴 이유는 개별심층면접 대상자로부터 보다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숨겨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수시로 문의하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별심층면접을 하였으며,³⁾ 면접방법은 대면면접, 전화면접, 대면과 전화면접 병행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와 교도소의 특성 및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A교도소 내 교도소장실 옆 회의실과 본 연구자의 교수실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시에는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비지시적 면접방법으로 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교정시설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다양하였다.⁴⁾ 또 면접 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렸다.

2) 자료 분석과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주제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주제 분석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적 의견과 관점들을 자연스럽게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질적 연구의 기준으로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을(Lincoln, Guba:2008, 141) 활용하였다. 신뢰성의 담보를 위하여 전임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1) 그것은 폐쇄형적인 제한된 질문을 속성으로 하는 양적 접근으로는 깊고 다양한 맥락이 포함된 실질적인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 <표>의 교정공무원 경력자의 근무부서는 현직인 경우에는 자료수집 당시의 근무부서이며 퇴직자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표시했으며 연령과 근무경력도 익명성 보호를 위해 넓게 표시하였다.
- 3) 집단심층면접은 A교도소 교도관 4명에 대해 연구보조원과 같이 A교도소 내에서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 4) 연구 참여자 #1, #2, #3, #4에 대해서는 A교도소에서 2시간을, 연구 참여자 #5는 대면면접과 전화면접을 합쳐 4시간을, 연구 참여자 #6은 전화면접으로 2시간을, 연구 참여자 #7은 전화면접과 대면면접을 합쳐 5시간 정도 걸렸다.

4. 면접 질문 내용

연구 참여자들에게 아래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실시하였다.

1)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이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 (1) 종교위원의 활동이 수용자 교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 (2) 종교위원의 활동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2)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1) 종교위원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 (2) 종교위원 활동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 (3) 종교위원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3) 전임 교종제 도입이 필요한가?

- (1) 필요성의 전면적 인정
- (2) 필요성의 제한적 인정

4) 전임 교종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가?

- (1) 채용형태(공무원 신분, 민간인)에 관한 의견조사
- (2) 채용형식(추천제, 공개채용제)에 관한 의견조사

5) 전임 교종제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1) 응시연령의 차별화에 관한 의견조사
- (2) 장애인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 (3) 성별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사

III.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그 결과를 아래 <표 2>와 같이 5개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 20개의 개념들로 나타내었다.

1. 연구결과

1)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이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1) 효과성 인정

기존 종교위원의 활동이 수용자 교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종교위원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활동은 종교로 인해 수용자들이 다양한 갈등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또한 가족 관계의 보완 역할과 정신적 측면 및 물질적 측면에서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복교도관이 시행하는 교화의 한계를 인간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3을 제외한 전체 연구 참여자).

“수용자들이 간혀 있다 보니까 마음들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잠시나마 종교인들이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종교활동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수용자들이 수용에서 오는 갈등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수용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게 합니다(연구 참여자 #1).”

“수용자 교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훼손된 경우 종교위원은 가족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연구 참여자 #4).”

“우리 직원들이 수용질서 확립을 위주로 하고 근무복을 입고 수용자를 대하니 수용자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인들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열어 교화에서 긍정적입니다(연구 참여자 #2).”

<표 2> 연구의 주요 범주 및 개념

범주	하위범주	개념
종교위원의 효과에 대한 의견	효과성 인정	• 심리적 안정에 기여 • 제복교도관의 한계 보완
	효과성 한계	• 종교교화의 형식성
종교위원의 문제점의 내용에 대한 인식	종교위원측면 문제점	• 종교위원의 고령화, 비전문성
	활동상의 문제점 제도적 문제점	• 보완과와 갈등 등 • 비상주(파트직)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필요성 인정	• 교정관료제의 한계 극복 •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을 극복
	필요성 부정	• 종교위원제의 혁신 • 유급시간제 방식의 필요성
전임 교종제 도입방식의 의견조사	채용형태(공무원 또는 민간인)	• 소속감 형성과 책임을 위해 공무원제가 부합 • 관료제화 방지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이 타당
	채용형식(추천제 또는 공개채용제)	• 종교직의 특성상 종교계의 추천제가 타당 • 형평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제가 타당 • 추천제와 시험제의 병행이 타당
전임 교종제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의견	응시연령의 차별화 여부	• 종교 업무의 특성상 응시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 • 형평성과 신규 조화를 위해 응시연령 차별화 불필요
	장애인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	• 사회유사화 원칙상 인정해야 함 • 교정 업무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
	성별제한의 필요성 인정 여부	• 형평성과 교계 추세에 따라 성별제한 필요 없음 • 교정 업무의 특성상 성별제한 완전폐지는 부적절

(2) 효과성의 한계

종교위원의 활동이 수용자 교화에 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 연구 참여자는 종교교화의 근본적 한계를 제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교정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주로 수용자를 다루는 현장 근무만 해 와서 정확한 실상을 누구에게도 뚝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교화가 되는 수용자들도 있지만 순수한 종교적 관심으로 종교위원을 대하는 수용자는 적습니다. 마음이 약한 종교위원을 수용자가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종교위원의 종교교회활동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 수용자는 적었으며 사이버 신자 수용자가 많았어요. 수용자들이 숨겨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교집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교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이렇게 종교위원의 종교교회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과 인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비전임 교종(종교위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 종교위원의 문제점

현행 종교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위원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고령화, 위촉의 폐쇄성, 사이버 종교위원의 존재, 비전문성을 지적하였다.

“종교위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러 활동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고령의 종교위원이 많아 수용자 종교교회에 한계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1).”

“종교위원 위촉 과정에서 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폐쇄적이어서 적격자가 위촉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종교적 열정을 가진 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게 위촉권한을 주면 안 되고 독립된 종교위원선정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 거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도소장도 외부에서 채용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6).”

“특히 종교위원 중에는 사이버 종교위원들도 있었어요. 종교위원들 중에는 순수한 재소자 교화보다는 전도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았으며 진정한 종교적 성취감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사이버 종교위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연구 참여자 #6).”

그러나 종교위원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종교교화의 과학적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직급과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로 하위직들은 종교위원들의 종교교회에서 사회복지, 상담, 심리 등의 비전문성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연구 참여자 #1, 2, 3, 4).

“근데 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려면 직원들이나 다름 없죠. 종교위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해소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

“상담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며 풀어준다면 그게 어떤 기술적 요소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대화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큼니다. 오히려 전문적으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수용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어떤 종교위원들은 그 나머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 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연구 참여자 #2).”

반면에 고위 경력 참여자들에게서는 교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종교위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청취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5, 7).

“종교위원도 상담, 복지, 종교학, 교정심리 등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앞으로 교정 이념이 교정복지의 추세로 이행되고 있으므로 거기에도 부합합니다(연구 참여자 #7).”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직급에 따라 종교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중·하위직들은 종교적 행위와 상담기법 및 사회복지 실천 능력 등의 전문성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에서 있고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경력의 참여자는 종교적 행위와 상담, 복지를 구분할 수 없는 연결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종교위원이 종교상담에서 효과성을 보이려면 수용자의 특성과 욕구 등에 따른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상담기법은 필요하므로 종교행위와 관련된 상담 등은 분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2) 종교위원 활동상의 문제점

종교위원 활동상의 문제로는 모든 연구 참여자가 종교위원과 보안과 직원들과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보안 갈등 등 여러 갈등을 피력하였으며 그 외에 종교교회

집회 시간의 문제점을 보이는가 하면(연구 참여자 #1) 파트근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발견되었다(연구 참여자 #3). 또한 종교위원의 수용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다수 연구 참여자들 의견도 있었다(연구 참여자 #1, 2, 3, 4, 6).

“사전교육 등도 하고 보안상 문제에 대해 얘기합니다. 반입 안 되는 물품이라든지, 사정 다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도 종교활동을 하다 보면 수용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종교위원이 귀담아 듣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돼요. 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교도관이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연구 참여자 #1).”

“종교위원들은 간혹 과도하게 수용자 편에서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순간에는 선을 넘어서 보안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우리 직원들처럼 보안책임감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용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보안장애물품을 주기도 합니다(연구 참여자 #2).”

“기독교와 불교는 시간 조정을 하나 천주교 미사는 의식이 많고 대행사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200~3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시간대가 보통 주간이라 작업시간대와 겹쳐 작업과에서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조율이 안 됩니다(연구 참여자 #3).”

“종교위원이 교도소에 상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언제든지 필요시 종교상담, 기도나 고해성사, 불경공부와 소예배 및 선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1).”

“종교위원들은 수용자의 특별면회, 가석방, 가족과의 만남 부탁 등 부정확한 청탁의 매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는 순진한 종교위원에게 ‘기부할 테니 가족을 만나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영치금을 받기 위해 종교위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영치금을 안 주면 매주 종교집회에 나가지 않거나 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3) 전임 교종제 도입이 필요한가?

(1) 도입 필요성 인정 논의

① 교정관료제의 한계 극복

군대의 전임 군종처럼 교정시설도 전임 교종제도가 전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었다(연구 참여자 #6을 제외한 전체 연구 참여자).

“어차피 뭐 직원으로 하든지 기능적으로 하든지 교도관들이 할 수 없는 종교적 측면의 상담을 원할 때는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수용자들의 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2).”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협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종교위원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정제도의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좀 더 설득이 쉽지 않을까? 뭐 저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연구 참여자 #3).”

② 종교위원의 문제점 극복

교정시설에 군종처럼 전임 교종제도가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 중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비전임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종교위원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종교교화의 한계와 수용자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질 높고 지속적인 종교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임직으로의 교종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목사님 등이 상담하러 이동할 때 직원처럼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교정제도로 성립되면 단독으로 자유롭게 수용자를 상담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각 종파별 행사도 교종제도로 채용되신 분들이 담당하게 되면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연구 참여자 #3).”

“실제 현장에서는 수시로 성직자가 바뀌어 수용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종교교리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시설 내 담임목회자라는 인식도 없는 등 여러 한계가 있어요. 수용자들은 종교관에 상주 성직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요(연구 참여자 #7).”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8. 5.(목) 09:30, 순천교도소
주요 내용 • 교정시설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상황 및 방역실태 점검
• 수형자 직업훈련, 전문학사 과정 등 현장점검 및 수형자 간담회

생각 Talk Talk, 교정본부 온택트(Ontact) 워크숍 개최



일시-장소 8. 18.(수) 17:00, 교화방송센터 스튜디오
추진 배경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를 활용해 법무부 장관과 교정본부 내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 마련
참석 대상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교정본부 전 직원
참석 방식 유튜브를 이용한 라이브 방송
※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교정본부 직원 110여 명이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실시간 방송(채팅으로 대화 및 토론)

법무부 차관,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8. 6.(금) 16:00, 서울동부구치소
주요 내용 •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상황 집중 점검 및 직원 격려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일시-장소 8. 18.(수) 16:30, 법무부 대회의실
참 석 자 • (법무부)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등
• (남원시) 남원시장, 남원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용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원시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제34대 서울지방교정청장 취임
 서울지방교정청에 8월 9일 제34대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취임했다. 이날 취임한 신경우 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 질서가 확립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제62대 서울구치소장 취임
 서울구치소에 8월 9일 제62대 유태오 서울구치소장이 취임했다. 유태오 소장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가 교정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2021년 제2회 검정고시 실시
 안양교도소는 8월 11일 2021년 제2회 검정고시를 실시했다. 이날 시험에는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의 수용자 44명이 응시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응시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 후 시험을 진행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소망갤러리 개관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8월 3일 민원봉사실 내 문화 공간인 소망갤러리 개관식을 개최했다. 초대 작가는 수원구치소 소속 유인종 교위로, 이번 전시회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꾸준한 노력과 자기 계발로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전시된 총 22점의 풍경화는 12월 31일까지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임경민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접종은 구치소 내 의료 인력을 활용해 수용자 총 577명에게 이뤄졌으며, 수용자들은 질서를 지키며 차분하게 백신을 맞았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제31대 인천구치소장 취임
 인천구치소에 8월 9일 제31대 최규철 인천구치소장이 취임했다. 최규철 소장은 “직원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인권이 존중받는 인천구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용자 5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류기현 소장은 “이번 백신 접종이 수용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제15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취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8월 9일 제15대 김도형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이 취임했다. 김도형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전태수
제47대 의정부교도소장 취임
 의정부교도소에 8월 9일 제47대 신동윤 의정부교도소장이 취임했다. 신동윤 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해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차단이 최우선 과제를 명심하고 전 직원과 단합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제56대 여주교도소장 취임
 여주교도소에 8월 9일 제56대 최진규 여주교도소장이 취임했다. 최진규 소장은 “역사 깊은 여주교도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주교도소가 행복한 삶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교정정책담당 정책 현장 방문
 김진구 교정정책담당장은 8월 19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백신 접종 상황과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무소음 이동형 CCTV 개발 현장을 돌아본 후 현장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방역 조치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8월 19일 춘천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백신 접종 상황 등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및 현장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우 청장은 “흔들림 없는 방역 체계를 갖춰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제40대 원주교도소장 취임
 원주교도소에 8월 9일 제40대 박진홍 원주교도소장이 취임했다. 박진홍 소장은 “수용 질서가 확립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소장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직원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강릉교도소는 8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백신 접종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비차별 원칙에 근거한 수용자 백신 접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용수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8월 5일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행동강령과 직장 내 갑질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현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을 방지해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교정본부장 격려금 전달
 강원북부교도소는 8월 17일 행정지원 인력(직원식당 조리원) 5명을 위한 교정본부장 격려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격려금은 지난 7월 말, 기관내 코로나19 확진 직원 발생으로 수용자 취사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공급될 급식 조리를 완벽하게 수행한 조리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이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제23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취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8월 30일 제23대 정진수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이 취임했다. 정진 지소장은 각 사무실 및 수용동, 코로나19 관련 시설을 순시했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소망 공모전 개최
 소망교도소는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직원 및 수용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창작 공모전을 개최했다. 높은 참여율을 보인 이번 공모전에서는 직원 4명, 수용자 12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작은 게시판 게시 및 홍보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제27대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
 대구지방교정청에 8월 9일 제27대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장이 취임했다. 구지서 청장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책임감 있는 법 집행, 적극적인 자기 관리로 신뢰받는 교정공무원,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수용자 물품 기증
 대구교도소는 8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85,000병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한 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오광은 소장은 “이번 생수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 개최
 부산구치소는 8월 19일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특별사법경찰대는 감·경 수사권 조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수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조사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김영식 소장은 “특별사법경찰대는 수사에 관한 집무상 준칙을 명시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월 2일 포항불교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5,000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폭염으로 지쳐있는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생수는 취사장 냉동고에서 얼음 생수로 만들어 수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실시

창원교도소는 8월 8일 2021년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시험에는 경남 지역 교정기관 4곳의 수용자 총 30명이 응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 2곳에 인원을 분리해 진행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교도소는 8월 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쉽고 간결한 슬로건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제15대 포항교도소장 취임

포항교도소에 8월 9일 제15대 김철민 포항교도소장이 취임했다. 김철민 소장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집행과 교정교화의 균형 속에서 법과 원칙, 인권이라는 기본에 충실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희망의 교정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수용자 물품 기증

진주교도소는 8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0,000병 및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생닭은 말복에 특식으로, 생수는 얼려서 지급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제23대 대구구치소장 취임

대구구치소에 8월 9일 제23대 서민 대구구치소장이 취임했다. 서민 소장은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며,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8월 1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KF94 마스크 10,000장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KF94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제57대 안동교도소장 취임

안동교도소에 8월 9일 제57대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이 취임했다. 육근우 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정기관의 방역이 최우선 과제이며, 전 직원과 단합해 따뜻한 교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황지훈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8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아이스크림 1,250개를 기증받았다. 배경석 소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기증으로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제61대 김천소년교도소장 취임

김천소년교도소에 8월 9일 제61대 박동수 김천소년교도소장이 취임했다. 박동수 소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직원 격려 물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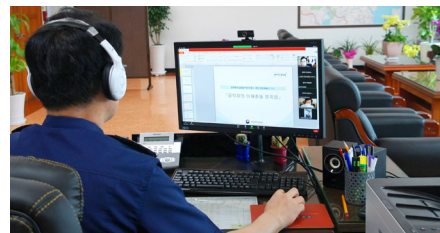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10일 지속되는 폭염에

도 수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팔빙수를 지급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 참석

울산구치소는 8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법무부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에 참석했다. 최재우 소장은 "이번에 수료한 릴레이 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직원 헌혈 운동 동참

경주교도소는 8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협조로 전 직원이 참여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서보균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수용자 물품 기증

통영구치소는 8월 12일 교정협의회 기독교분과위원회로부터 라면 1,200개와 아이스크림 1,0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모든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구치소 / 교도 백지정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밀양구치소는 8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로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단계별 대응 과정 숙지와 유관 기관 협조 체계 점검을 통한 직원들의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상주소상공인연합회 업무 협약 체결

상주교도소는 8월 18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해 상주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상주교도소는 지역 농산물 및 소상공인 운영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상주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취·창업 교육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승현

제31대 대전지방교정청장 취임

대전지방교정청에 8월 9일 제31대 정병현 대전지방교정청장이 취임했다. 정병현 청장은 "수용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정교화 시스템을 구축해 재범률을 낮추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선진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수용자 물품 기증

대전교도소는 8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동노회로부터 팔빙수 3,000개를 기증받았다. 서호영 소장은 "물품 기증에 감사하며 혹서기 및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이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제60대 청주교도소장 취임

청주교도소에 8월 9일 제60대 양원동 청주교도소장이 취임했다. 양원동 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취임식을 생각하고 초도순시를 실시해 감염병 예방 및 하절기 수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천안교도소는 8월 9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날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정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속한 집단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및 수용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8월 19일 서수원 소장을 강사로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신규 도입된 행동강령 행위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갑질 예방 등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

공주교도소 / 교위 노호성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공주교도소는 8월 19일 교정시설 내 델타변이 확진자 발생 상황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격리 수용 점검을 위해 다양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진행됐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표어 공모전 개최

충주구치소는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사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표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 생활 및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홍성교도소 / 교사 정조원

수용자 물품 기증

홍성교도소는 8월 11일 홍성교도소교회로부터 아이스크림 45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아이스크림은 혹서기 동안 수용자에게 지급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8월 3일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입 신고식에서 대체복무요원 대표자는 선서와 함께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체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제18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취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8월 9일 제18대 장승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이 취임했다. 장승구 지소장은 각 근무지를 방문해 무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전국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현장 방문

전국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소속 김상규 위원 8월 19일 2021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현장 실사를 위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방문했다. 김상규 의원은 도서 업무 담당자로부터 도서관 운영 실태 및 관련 자료 등을 보고받았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제37대 광주지방교정청장 취임

광주지방교정청에 8월 9일 제37대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이 취임했다. 신용해 청장은 “사회정의 실현과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 신장과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광주교도소는 8월 2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해당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광주교도소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이지만 지속적인 참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제66대 전주교도소장 취임

전주교도소에 8월 9일 제66대 김남주 전주교도소장이 취임했다. 김남주 소장은 “전주교도소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앞서가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법무부 장관 정책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5일 순천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수용자 직업훈련 실태를 점검하며 관계 직원들을 독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해 12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확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순천교도소의 선제적 조치 및 순천시와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격려했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형창

수용자 물품 기증

목포교도소는 8월 1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열음생수 20,000병을 기증받았다. 한성주 소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수용자들을 위해 기부를 결정해 주신 교정협의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수용자 물품 기증

군산교도소는 8월 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삼계닭 1,000수를 기증받았다. 홍순철 소장은 “무더위로 힘든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수용자 물품 기증

제주교도소는 8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JPDC)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JPDC)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생수를 기부하고 있다. 기증받은 생수는 혹서기 동안 얼음물로 수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교도소 / 교위 김준환

교정발전협의회 개최

장흥교도소는 8월 25일 교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으며, 각 과의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이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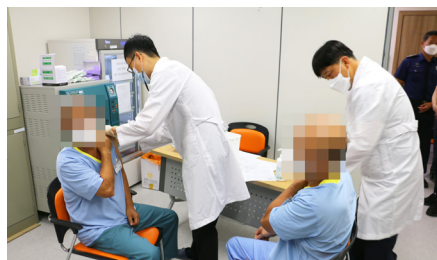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 실시

해남교도소는 8월 25일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민열 소장은 각 부서 대표자들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주요 내용 등을 교육했으며,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정읍교도소는 8월 3일부터 접종에 동의한 수용자 1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교정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지만,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해 직원 및 수용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식이 오다
● 모범 공무원 소개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오경식

오경식 교위는 24년여간 교정공무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보안과 수용동 업무를 담당하며 수용자와 상시 상담을 통해 각종 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업무 처리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른 현장 교육 등의 적절한 조치로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교위 손영섭

손영섭 교위는 18년여간 수용자의 수용 처우 및 교정교화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수용 관리 업무에 남다른 성과를 만들었다. 현재 보안3부 미결수용동 근무자로 지난 7월 3일 오후 6시경, 독거실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던 중 독거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쿵’ 소리와 함께 수용자가 거실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손영섭 교위는 이를 즉시 사무실에 보고한 뒤 수용자의 목 부위에서 줄을 감은 흔적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동행했으며, 화장실에 남아 있는 끈 등을 수거·인계해 자살 사고를 방지했다.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송중현

송중현 교감은 올해 7월부터 중간 처우 수용자들의 사회 적응 능력 향상과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수용자가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수용자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 있다. 송중현 교감은 개방 지역 작업장 담당자로 1단계 교육 수료 후 작업이 지정된 수용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담하며, 기술 습득 및 근로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읍교도소 교사 김용희

김용희 교사는 보안과 중앙통제실 근무자로 구내 통용문, 거실문 및 CCTV 카메라 등 각종 전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장 시 보고 후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전자 장비 시스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전파해 기동순찰팀 및 직원 등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INVITATION



인간사랑 나라사랑
Human Love Nation Love

한국교정인성교육원,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 모집공고

교정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부설 한국교정인성교육원과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Covid-19 상황속에서 2021년 "인성교육을 통한 수용자 공동체
창의적 교화혁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 및 논문 발표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를 안내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사장 김 성 기 목사

- 논문 내용 및 범위 : 수용자 인성교육에 관한 독창성과 창의적인 논문
- 논문 발표 신청 기간 : 2021년 9월 29일 (수)까지 제출
- 논문분량 : 10폰트 20페이지 이내 (별첨 논문작성 지침 및 예시 안내)
- 문의및 접수 : 사무국장신미자 010-2458-0675
이메일 mjshin345@hanmail.net

학술대회 및 논문 발표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에 따라
7-10분 정도의 동영상
예) 오디오가 포함된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을 보내주시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원고료 지불과 창간호에 실리게 됩니다.



한국교정인성교육원장 윤종우
(전 부산구치소장,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장 김안식 배상
(전 안양교도소장, 백석대학교 교정학과장)

Supported by

 법무부 교정본부, 사)새희망교화센터,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18~49세 ('72.1.1.~'03.12.31.출생)

전연령층 추가 사전예약

8월 21일(토) 20시부터 9월 18일(토) 18시까지

누리집 ncvr2.kdca.go.kr  통해
예약하세요

나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드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정이야기~

교정본부 UCC·영상 공모전

2021. 8. 20 - 10. 4



응모 자격 대한민국 모든 국민
*1인(팀)1작품 제출가능

응모 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납비현상 극복을 위한 스토리텔링
- 수용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정시설
- 지역경제를 살리는 우리동네 교정시설
- 3분 이내의 창작영상물로 형식의 제한 없음

※참고자료

- 교도소 24시(교정본부 유튜브), 월간「교정」(cowebzine.com) 등
- *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참조

응모 일정

- 공모 기간 : 2021년 8월 20일(금) ~ 10월 4일(월)
- 접수 기간 : 2021년 8월 30일(월) ~ 10월 4일(월)
- 수상자 발표 : 2021년 10월 18일(월) 예정
* 공모전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예정
- 시상식 : 2021년 10월 28일 예정
* 시상식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 방법

- ① 유튜브 개인계정 영상 업로드
 - 영상 제목 앞에 ‘교정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 명시
 - 필수 해시태그를 추가하여 영상 업로드
#법무부, #교정본부, #10월28일_교정의날, #유튜브_교도소24시
- ② 공모전 접수페이지에 영상 및 URL 등록
 - 영상규격 : 3분 이내 / mp4 형식 / 720p 이상 / 200MB 이내

시상 내역

구분	인원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팀)	법무부장관상(상금 300만원)
우수상	1명(팀)	법무부장관상(상금 200만원)
장려상	1명(팀)	법무부장관상(상금 100만원)
참가상	5명(팀)	상금 각 30만원

* 참여작품수, 품질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상금 및 수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주최측이 부담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mojcontest.com] 이용

문의 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6395-3127
(월-금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